

2017년 5월 1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상승 전환에 성공

### 므누신 재무장관, “올해 안에 세계 개혁안 마련되길 기대”

#### 미 정책 지속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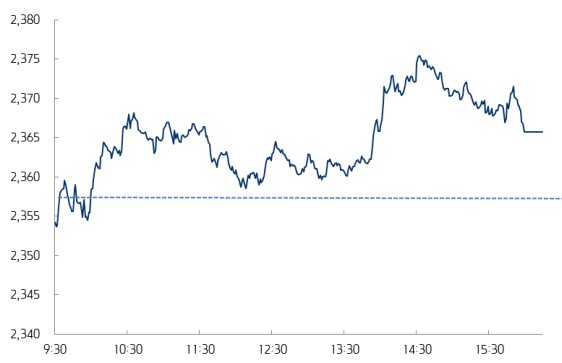
유럽증시는 트럼프 발 정치 불확실성 부각으로 부진. 다만 실적이 개선된 버버리(+5.16%)가 급등하는 등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낙폭 축소. 정치 스캔들에 의해 탄핵 이슈가 부각된 브라질 증시 급락 여파로 미 증시 하락 출발. 그러나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3.22%)의 상승과 개선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 한편, 미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세계 개혁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재정규제 개혁 보고서는 6월 중에 내놓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자 상승폭 확대(다우 +0.27%, 나스닥 +0.73%, S&P500 +0.37%, 러셀 2000 +0.38%).

트럼프 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 동안 미 증시 상승 원동력이었던 ‘세계개혁’과 ‘재정지출’ 더 나아가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 표류 가능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 더불어 정책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며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그러나 미 증시는 두 가지 우려 모두 완화되며 상승.

먼저 경제지표 개선. 지난 5월 초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지수가 급격히 둔화. 특히 두 나라 모두 신규주문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 여파로 경기 둔화 이슈가 한때 부각되기도 했음. 그러나 오늘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결과(22.0→38.8)를 내놓으며 제조업 둔화 우려를 완화.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높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등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 그리고 다음달 ISM 제조업지수의 선행 역할을 해 중요함. 지난 16일 산업생산 결과와 더불어 이 지표로 경기 위축 우려 완화.

두 번째 트럼프 정책 지연 우려 완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세계개혁안이 올해 안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주장. 더불어 “재정규제 개혁 보고서를 6월 안에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발표. 더 나아가 “세계개혁과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주장. 결국 미 행정부는 트럼프 탄핵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언급하며 투자심리 완화.

S&P500 일종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286.82	-0.27	홍콩항셱		25,136.52	-0.62
KOSDAQ		638.12	-0.30	영국		7,436.42	-0.89
DOW		20,663.02	+0.27	독일		12,590.06	-0.33
NASDAQ		6,055.13	+0.73	프랑스		5,289.73	-0.53
S&P 500		2,365.72	+0.37	스페인		10,684.90	-0.94
상하이종합		3,090.14	-0.46	그리스		782.83	-0.79
일본		19,553.86	-1.32	이탈리아		21,302.42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어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브라질 증시 급락

지난해 8월 말 호세프 전 대통령이 의회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 당시 부통령이었던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음. 그런데 이 테메르 대통령 또한 정치 스캔들이 부각되며 탄핵 여론 상승. 특히 중도 성향의 정당들과 사회당 등이 전일 하원의장에게 테메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 더불어 집권 우파 연합에서도 탄핵 찬성 발표 의원들 급증. 전일 브라질 언론이 "테메르 대통령이 일부 정치인에게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입막음용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 라고 보도가 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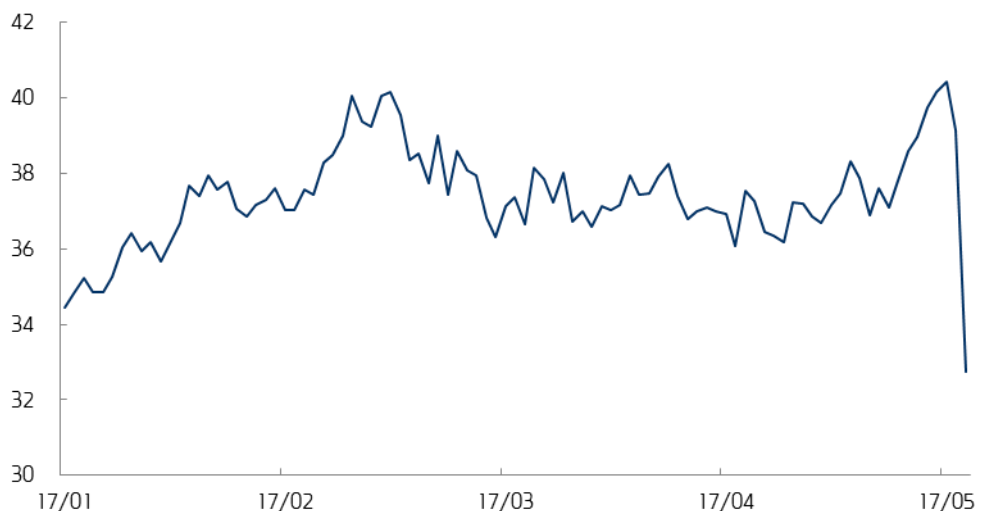
한편, 작년 말과 4월 말 여론조사를 비교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28%→31%) 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감소(41%→31%). 더불어 개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도 증가(37%→45%). 결국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브라질 국민들은 현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음. 실제 IMF도 "브라질 경기 침체는 올해 끝날 것이며 내년 성장률은 상향 조정(1.5%→1.7%)한다" 라고 발표.

그렇기 때문에 전일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실제 금품 제공 시도한 부분이 제기되며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의 개혁 정책 후퇴 우려로 브라질 증시 장중 10% 넘게 급락하다 8.80% 하락 마감. 더불어 브라질 비중이 7.43%나 되는 MSCI 신흥 지수 또한 1.66% 하락. 이와 함께 브라질 헤알화도 달러대비 7% 넘게 약세를 보였으며 10년물 국채금리도 170bp 넘게 급등. 미국에 상장된 브라질 관련 종목 및 ETF(i Shares MSCI Brazil Capped ETF -16.33%)도 급락 하는 등 브라질 관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더불어 브라질 농민들이 올해 생산된 대두를 헤알화가 달러대비 7% 넘게 약세를 보이자 서둘러 팔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며 국제 곡물가격도 하락하는 등 브라질로부터 파생된 상품시장 일부도 영향.

이러한 점을 감안 미국 트럼프 탄핵 이슈와 더불어 상품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라질 정치 이슈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i Shares MSCI Brazil Capped ETF(연초 이후)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애플 관련주 강세

브라질 탄핵 이슈가 부각되며 미국에 상장된 브라질 종목들이 급락했다(Petroleo Brasileiro -15.76%, Banco Bradesco -13.11%, Itau Unibanco -12.05%, 아이쉐어 브라질 ETF -16.33%). 한편, 전일 장 마감후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시스코시스템즈(-7.21%)는 하락했다. 장 시작 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알리바바(+0.46%)는 약세 보이다 장 막판 상승했다.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L브랜드(+2.67%), 월마트(+3.22%)는 상승했다. 중고차 판매회사인 카맥스(+6.15%)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했다. 애플(+1.52%)은 아이폰 8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 팀쿡 CEO가 혈당을 추적하는 장치를 테스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2.63%), 스카이웍(+2.64%), 브로드컴(+2.80%), 쿠로브(+4.15%) 등 애플 관련주도 동반 상승 했다. 전일 하락폭이 컸던 N비디아(+4.19%), 아마존(+1.45%), 페이스북(+1.94%) 등도 상승세에 가담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갭(-1.53%), AMAT(+2.69%)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시간외로 3% 내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00%	대형 가치주 ETF	+0.08%
에너지섹터 ETF	+0.89%	중형 가치주 ETF	+0.11%
소매업체 ETF	+0.22%	소형 가치주 ETF	+0.28%
금융섹터 ETF	+0.39%	배당주 ETF	+0.01%
기술섹터 ETF	+0.59%	변동성 ETF	-2.24%
소셜 미디어업체 ETF	+1.86%	대형 성장주 ETF	+0.57%
인터넷업체 ETF	+0.74%	중형 성장주 ETF	+0.47%
리츠업체 ETF	+0.19%	소형 성장주 ETF	+0.35%
주택건설업체 ETF	+0.05%	신흥국 고배당 ETF	-1.61%
바이오섹터 ETF	+1.28%	신흥국 저변동성 ETF	-0.71%
헬스케어 ETF	+0.44%	하이일드 ETF	+0.13%
곡물 ETF	-0.69%	물가연동채 ETF	+0.16%
반도체 ETF	+1.48%	Long/short ETF	+0.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2.05	-0.11%	-1.38%	-1.72%
소재	325.48	-0.01%	-1.49%	-0.61%
산업재	558.61	+0.16%	-2.21%	-0.56%
경기소비재	705.45	+0.60%	-1.54%	+0.24%
필수소비재	564.62	+0.07%	-0.14%	-0.25%
헬스케어	863.41	+0.41%	-0.85%	+0.89%
금융	383.33	+0.31%	-2.27%	-1.25%
IT	940.20	+0.58%	-0.88%	+3.92%
통신	155.15	+1.21%	-1.52%	-6.16%
유틸리티	262.18	+0.39%	+0.70%	+0.41%
부동산	194.68	+0.23%	+0.27%	-2.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매도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0.09% 상승한 반면 MSCI 신흥 지수는 브라질 증시 급락 여파로 1.66%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도(1,637계약)가 증가하자 미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0.10pt 하락한 298.6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8.3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4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 탄핵 이슈가 부각되었으나 므누신 재무장관이 “세제개혁을 올해안에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우지수의 장중 변동폭이 1%가 넘는 등 우려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국 증시는 전일 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증시는 미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물 출회되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여전히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브라질도 탄핵 이슈가 불거지며 장중 10% 넘게 급락하고 국채금리와 헤알화가 급변 하는 양상을 보인 점도 부담이다. 브라질의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AMAT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4% 내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애플 부품주가 장중 3%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된 개별 종목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 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전월(22.0)보다 양호한 38.8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보면 출하지수가 증가(23.4→39.1) 했을 뿐 신규 수주(27.4→25.4), 고용지수(19.9→17.3)이 하향 조정 되었으며 특히 재고지수(17.8→1.4)는 급락했다.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3만 6천건)보다 감소한 23만 2천건으로 발표되었다. 4주 평균 청구건수도 24만 750건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지난달(0.3%)와 같은 0.3%로 발표되었다. 한편,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와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소매판매는 지난달(-1.4%)대비 2.3% 증가했다.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 감산 연장 기대감에 상승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2018년 3월까지 감산 기간 연장에 합의한 이후 사우디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이 상승 요인이었다. 한편, 이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이란 기업 제재를 추가하자 보수파의 승리 가능성도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세제 개혁안이 올해 안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오후 들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지난 2년 동안 나타났던 연간 1회 금리 인상 횟수보다는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자 강세폭을 확대했다. 다만, 여전히 트럼프 탄핵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 장 후반 강세폭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헤알화는 탄핵이슈가 부각되며 정부의 개혁 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며 달러대비 7%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 페소화는 깜짝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아공 란드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은 달러대비 약세폭이 컸다.

국채금리는 트럼프 정치 불확실성으로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이 세제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전과 달리 금리인상 속도는 빨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한데 힘입은 결과로 추정한다.

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하락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다. 대두는 브라질 헤알화가 달러대비 7% 넘게 급락하자 대두를 매도하려고 서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락했다. 한편, 밀과 옥수수도 대두가격 급락과 달러 강세로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9.35	+0.57	+3.18	Dollar Index	97.863	+0.30	-1.77
브렌트유	52.51	+0.57	+3.43	EUR/USD	1.1103	-0.50	+2.23
금	1,252.80	-0.47	+2.34	USD/JPY	111.49	+0.60	-2.08
은	16.670	-1.40	+2.49	GBP/USD	1.2938	-0.25	+0.40
알루미늄	1,923.00	-0.16	+1.75	USD/CHF	0.9799	+0.10	-2.77
전기동	5,580.00	-0.30	-0.41	AUD/USD	0.7419	-0.17	+0.54
아연	5,856.79	-1.78	-3.47	USD/CAD	1.3603	+0.01	-0.69
옥수수	366.00	-1.48	-0.88	USD/BRL	3.3758	+7.54	+7.51
밀	425.75	-0.29	-1.84	USD/CNH	6.8831	+0.17	-0.30
대두	944.75	-3.18	-2.23	USD/KRW	1124.5	+0.55	-0.30
커피	129.65	-3.53	-3.43	USD/KRW NDF1M	1128.32	+0.48	+0.3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229	+0.51	-15.80	스페인	1.553	+0.30	-8.00
한국	2.245	-0.20	-6.20	포르투갈	3.187	-0.30	-18.50
일본	0.047	+0.10	-0.70	그리스	5.704	+6.10	+12.00
독일	0.343	-3.50	-8.90	이탈리아	2.140	-0.60	-14.50